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 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_ 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7-18



02 |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그리스도께 물들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다” 라는 주제로 열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는 말씀 안에서 소그룹 사역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자들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물들어 사랑으로 품고 순종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결단했습니다.

03 |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말씀 스케치

이창교 목사님의 설교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물들어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할 성도의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김태섭 교수님의 강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가정 안에 임함을 밝히며, 성령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04 |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소감

수련회에 참여한 성도들의 고백은 적당히 물든 ‘얼룩’이 아닌, 예수로 물든 ‘작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변화를 생생히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동 속에 다시 신앙의 방향을 세운 여정을 나눕니다.

05 | 중고등부 부모초청예배

중등부와 고등부 부모초청예배는 자녀의 마음에 공감하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부모의 역할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와 부모, 교회가 함께 다음세대를 위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다짐하는 공동체의 소망을 전합니다.

06 | 청년부 겨울수련회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즐거움으로 모여, 나눔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흠뻑이’ 라는 흐름 속에서 공동체와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예배와 특강, 나눔과 섬김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히스토리 빌더’로 살아가도록 세워진 시간을 전합니다.

12 | 중보기도부 월례회 및 서약식

중보기도부 월례회와 서약식은 ‘구색을 버리고 회개로’ 나아가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13 | 어와나 연합오프닝 8교구 개강감사예배

5세 커비스부터 고등학생 저년까지 어와나 5개 부서가 연합으로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인 8교구의 개강감사예배 소식을 전합니다.

14 | 부서별 사역자 모집

2026년 봄, 주님의 정원을 함께 가꿀 동역자를 기다리며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사역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거창한 준비보다 한 사람의 따뜻한 섬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작이 됩니다.

15 | 십자말풀이

이번 호의 성경 십자말풀이는 신약의 열다섯 번째 책,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문제를 풀어가며 교회와 신앙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그리스도께 물들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다

주님의교회 소그룹분과위원회 주관으로 2026 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가 3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곤지암 소망수련원에서 1박 2일간 열렸습니다. 전 교구의 겨자씨 인도자·겨자채 돌봄이·겨자목 섬김이 약 240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 학기를 앞두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 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3월 5일 저녁, 창원상남교회 이창교 목사가 고린도전서 11:1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께 물들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의 75.4%가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한 현실을 직시하며, 그 근본 원인이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어 거룩함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단어로 압축해 도전했습니다. 첫째 **물들다** — 염색이 아홉 번의 과정을 거쳐야 작품이 되듯, 적당한 신앙은 얼룩이 될 뿐이며 온전히 그리스도께 물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안아주다** —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품을 것을. 셋째 **순종하다** —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즉시·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해야 할 몫을 남에게 돌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 교구별 모임

저녁 집회 후에는 배운환 목사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말씀 퀴즈와 목회자 어릴 적 사진 맞추기 등 유쾌하고 흥겨운 순서가 이어지며 모든 참석자가 하나 되는 웃음 가득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교구별로 나뉘어 교구 모임을 가지며 새 학기 사역을 함께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집회 - 김태섭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3월 6일 아침,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김태섭 교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김 교수는 타키투스·요세푸스 등 1세기 역사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과 십자가 사건을 생생히 풀어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왕국)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임을 강조하며, 선악과의 유혹이 결국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라"는 것이었듯,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누가 왕 노릇 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성령의 통치를 통해 이미 우리 가정에 임하는 현재적 실제임을 역설했습니다.



감사와 영광

이번 수련회가 은혜롭고 순적하게 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련회 전반을 기획하고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박정민 전도사님과 소그룹분과 스태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교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인도자들을 돌보아 주신 차승천·조연상·김주환·배운환·박준범·김은선·이태욱·김요한 목사님, 그리고 각 교구 겨자목 섬김이와 겨자채 돌봄이 모든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이번 수련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로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각 겨자씨 인도자들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물들어 작품이 되고, 가정과 소그룹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각 겨자씨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줄함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저녁집회

그리스도에 물들다

2026 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 창원상남교회 이창교 목사가 고린도전서 11:1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물들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 75.4%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현실을 직시하며, 그 근본 원인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물들기보다 세상에 물들어 거룩함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짚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1

① 물들다 - 온전히 물들어 작품이 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물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물들면 작품이 아닌 얼룩이 됩니다. 염색이 아홉 번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색이 나오듯, 마음의 기울기를 하나님께 두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 분홍색처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찬란한 그리스도인의 작품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② 안아주다 -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품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_ 롬 15:7

안아준다는 것은 포용이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워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도 주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안아줄 때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③ 순종하다 - 내게 맡겨진 사명에 즉각 순종하라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즉시,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남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순종하는 삶을 먼저 보여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고 복음이 흘러갑니다.

함줄함울



.. 결단의 한마디 ..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물들어 작품이 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복음으로 물들어갑니다.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아침집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아침 집회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김태섭 교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성경과 역사 문헌을 통해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_ 누가복음 17:20-21

① 십자가와 부활 - 무능함과 전능함의 역설

당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저주의 상징"(신 21:23)이었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종교를 믿습니다.

② 하나님 나라 - 공간이 아닌 통치, 지금 내 안에 임하는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부터 승천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현재 시제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왕국)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선악과의 유혹도 결국 "네가 너 인생의 왕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누가 왕 노릇 하고 있느냐" — 이것이 핵심입니다.

③ 하나님 나라 가정을 위한 세 가지 실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져갈수록 세상은 작아집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_ 고린도후서 6:10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도덕적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기도로 성령을 구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임합니다.

함줄함울



.. 결단의 한마디 ..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의 통치 아래 살며, 기도로 성령을 구할 때 -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당당히 자랑하는 가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정이 되십시오.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소감

적당히 물든 ‘얼룩’이 아닌, 예수로 물든 ‘작품’이 되길

수련회 신청 마지막 주일, “함께 가실래요?”라는 단톡방 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낮가림이 심해 올해는 가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통해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는 마음이 들었고, 기대를 안고 겨자씨 식구들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날 강의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물들면 작품이 되지만, 적당히 물들면 얼룩이 된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 겨자씨 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의 인도자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둘째 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바울의 고백 앞에서 세상을 자랑 하던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라는 물음에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제 입술에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언어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작품으로 빛시키고 복음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영희 / 바울겨자씨 인도자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소감

천국 잭팟! 여기에

명칭만 보고 겨자씨 인도자들만 가는 줄 알고 무관심했었는데, 우리 겨자씨 원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집으로 데리러 오겠다는 말에 미안해서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마음 먹음이 잭팟을 터트릴 줄이야.....

아프신 친정어머니를 3년 동안 보살피면서, 주변 어르신들의 마지막 모습과 나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았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에 갇혀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던 무지한 내가 수련회를 통해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작년 수요일에 채모세 목사님의 천국 설교 말씀이 신호탄이 되었고, 임영수 목사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26.2.8)과 이태욱 목사님의 ‘고향을 떠나 위로부터 태어나다’ 말씀(26.3.1)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다시 보기’가, 그리고 마침내 수련회 둘째 날 일타강사 같은 장신대 김태섭 교수님의 명징한 말씀을 들으며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

는 것, 거듭난 자 즉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이며 나의 선택에 따라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뜨거운 기도, 봉사자분들의 세심하고 따뜻한 섬김, 맛있는 밥과 간식, 깨끗한 숙소, 마지막 해의 촛불을 강렬한 태양 빛처럼 불살라 주셨던 배운환 목사님 인도의 레크레이션(너무 웃어서 10년은 젊어진) 시간 등, 받은 은혜에 빠져 속세(?)에 두고 온 가족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재미, 은혜, 감동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은 최고의 수련회!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33년을 살다 간 젊은 사내가 이토록 오래도록 이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선사하다니.....

맛보지 않은 못 배기실 걸 ~~~~ ^^

무명

청소년부
중고등부
부모초청예배

공감과 사랑으로 이어진 부모초청예배

청소년부 중등부는 지난 3월 1일(주일), 고등부는 3월 8일(주일)에 각각 부모초청예배를 드렸습니다.

1. 팝콘트리 중등부 부모초청예배

100여 분의 학부모님이 참석하신 중등부 부모초청예배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등부 주찬양 목사님은 <KNOCK, KNOCK 공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공감과 이해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가 평강을 전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들도 마음의 문을 닫는 자녀들에게 역지가 아닌 수용과 인내의 마음으로 다가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정답을 가르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곁에 머물며 자녀의 말에 먼저 귀 기울여 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설교 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손을 꼭 맞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품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비전트리 고등부 부모초청예배

비전트리 고등부 예배에도 50여 분의 부모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크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때입니다. 고등부 이동길 전도사님은 <눈물 곁에서 있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가족의 기둥이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매의 슬픔을 비통하게 여기시며 죄와 죽음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쏟으셨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고 강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기치 못한 결핍이나 빈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곳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울타리

각 부서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학부모님과 담임 교사가 만나는 '반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와 부모, 교역자가 함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계속 이어져,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계원 목사 / 청소년부 총괄

청년부
겨울수련회

즐거움으로 모여, 나눔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흠어지다

이번 수련회 기획의 대전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수련회 여정은, 짧은 시간 안에 '히스토리 빌더'라는 주제를 온전히 체득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로 채워졌습니다. 직장인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요일과 주일 프로그램의 깊이를 한층 더했습니다.

1일차: 통합

수련회의 문을 여는 첫날은 공동체의 벽을 허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서먹했던 청년들이 웃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2일차: 나눔

둘째 날은 '나눔'이 핵심이었습니다. '인사이드 빌더'와 '아웃사이드 빌더'라는 두 번의 특강, 그리고 이어지는 조별 모임을 통해 내면과 외면을 아우르는 신앙을 고찰했습니다. 특히 장경철 교수님의 몰입형 말씀

과 뜨거운 저녁 집회는 청년들이 서로의 신앙 고백을 나누며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정점이 되었습니다.

3일차: 확산

마지막 날은 청년 안의 은혜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흠어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내 봉사와 지역사회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통해, 신앙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공동체 안팎에서 '히스토리 빌더'로서 첫발을 내디디며 수련회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함께 세워져 간 수련회의 시간들

공동체 프로그램

이전까지 진행됐었던 수련회들의 일정과 다르게, 이번 수련회는 개회 예배 후 첫 일정으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영화 <주토피아>에서 여러 생태계가 나온 것처럼, 6개의 다양한 생태계들을 컨셉으로 조별 게임이 준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원들과 어색하기도 하고 먼저 나서기에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내 게임들을 하나씩 진행해 가면서 승리한 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게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서로가 더욱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강

특강은 2일 차인 토요일 오전과 오후 총 2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오전 시간에는 Outside Builder라는 컨셉에 맞춰,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 나가고 계시는 김영찬 선교사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특강을 들으며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Inside Builder라는 컨셉으로, 주님의교회 시무 장로님으로 섬겨주고 계신 김광일 장로님이 오셔서 귀한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전 시간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나누었다면, 오후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내면에 대해 알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지행동적'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눠 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모임

조모임은 총 3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모임에서는 자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던 경험들을 나누었고, 동일한 상황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각자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모임에서는 스스로의 뇌 구조를 그리는 시간을 통해 최근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나누고, 그중에서 비워 내고 싶은 영역들에 대해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싶은 것들은 어떠한 것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모임에서는 앞선 두 번의 조모임에서 나누는 것들을 블록에 적어 다른 조원들의 블록과 함께 조별로 블록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회

1시간가량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이번 수련회의 집회에는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장경철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 하나님과 함께하는 써바이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관통하였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재밌게 풀어가며 설교를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길 소망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셋째 날 오전에는 사전에 조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식당 봉사, 차 봉사, 교회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각 봉사에서 섬겨 주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모두에서 귀한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에서는 플로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교회 밖에서 'History Builder'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헌태 / 25기 부회장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주토피아를 넘어, 히스토리 빌더로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히스토리 빌더(History Builder)’입니다.

매년 1,2월이면 우리 청년들은 관성처럼 수련회를 기다리곤 합니다. 지난 2년간 겨울수련회는 교회에서 3일 일정으로 진행했지만, 올해 겨울수련회로 제안받은 수련회 일정은 2일 일정으로 더 짧은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결핍보다 본질에 집중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가장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이번 2026 겨울수련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전 세대의 사랑을 받은 영화 <주토피아>에서 얻었습니다. 다양한 동물이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영화 속 풍경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처럼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거하고 있는

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즐거운 ‘주토피아’를 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이번 수련회는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 머물던 우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짓는 우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7기 신입생부터 결혼을 앞둔 청년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히스토리 빌더’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청년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써 내려간 이번 수련회는 우리에게 단순한 행사를 넘어선 영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를 동력 삼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주토피아’를 짓는 역사를 써 내려갈 주님의교회 청년들의 2026이 기대됩니다.

박경찬 / 23기 회장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마르다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

주님의교회 청년부에서 임원단으로서 참여해 본 첫 수련회, “아카이브 임원단”에게는 거의 두 달짜리 일정이었던 겨울수련회 “주토피아”가 끝이 났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님의교회에 온 지 삼 년 이상 지났지만 여태 한 번도 수련회에서 무언가 섬김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평신도로 참여할 뿐이었다. 조장의 경우에는 때로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공황장애가 시작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30분~1시간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해줘야 한다. 이 증상은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사람이 많은 장소일수록 쉽게 찾아온다. 피곤하고 사람이 많은 수련회의 특성상 나는 대부분 일정 중 한 번 정도는 공황장애를 경험하곤 했었다. 이런 내가 조장 같은 섬김을 한다면 모두에게 민폐일 게 분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섬김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거라는 기대감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20대 초중반에 다녔던 이전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사역을 해 봤다. 그때도 임원단, 셀 리더, 사역팀 등 다양한 섬김을 해 봤지만,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졌다. 교회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보이는 사람들 간의 갈등, 하소연조차 하지 못해 혼자서 삼켜야 하는 분노와 상처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

물론 그런 고난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받은 은혜도 참 많았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경험은 너무나 유익한 성화의 길이다. 애초에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고난의 길. 그 진리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은 너무나 아팠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경험 속에 내 마음에는 생각보다 큰 벽이 생겨버렸고, 나는 꽤 오랫동안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 시절 나의 머릿속을 채웠던 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였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고, 마리아는 그 섬김을 받으며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만 결국 칭찬받는 건 마리아였다. 일을 안 하니 예배에 집중도 잘 되고 칭찬까지 받는다. 이걸 손익을 따져 볼 필요조차 없는 남는 장사였다. 그래서 당시의 나는 “마리아”가 되기로 했다. 고생하고 욕만 먹는 “마르다”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뒤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곳, 비슷하지만 다른 곳인 주님의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전의 상처는 많이 씻겨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얼마큼의 의심이 있었다.

‘그래도 임원단 사역은 좀 아니지 않나?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당시 내 주변에도 주님의교회 청년부에서 임원단을 경험했던 이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후기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힘든 것 이상으로 좋았다, 아련하다, 한 번쯤 해 볼 만하다. 심지어 어떤 누나는 임원단을 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눈물이 난다는 고백을 했다.

나도 8년 전에 이전 교회에서 임원단을 했었지만 지금 와서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딱히 별 감흥은 없다. 이런저런 기억들은 나지만, 그렇다 할 감정이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순수한 호기심이 생겼다.

‘이곳은 뭔가 다른가?’

그리고 정신을 차려 보니 나는 임원단 사역을 하는 중이다. 이제 막 두 달이 되었을 뿐이지만, 수련회 준비로 인해 교회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때로는 밤까지) 있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특히 수련회 전 주 주말에는 시뮬레이션 중에 공황장애가 와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수련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련회가 다가오는 게 두렵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수련회가 시작됐다. 임원단으로서 맞이한 수련회는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체력은 점점 떨어져 갔고, 눈꺼풀은 무거웠다. 또 공황장애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으며, 디스크와 반복되는 노동 때문에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교회 지체들을 만나고, 임원단과 함께 실없는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며 이상하게도 정신은 점점 맑아지는 걸 느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틀 차 밤 집회 시간이 되었다. 예배당에선 찬양과 위십의 열기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데스크를 돌아다니며 간식을 보충하고 있었다. 같은 임원단 형이 교대하자는 말도 했지만 이상하게 들어가기 싫었다. 나는 여전히 안내 데스크를 서성이고 있었다.

‘찬양 끝나고 설교 시작하면 많이들 피곤할 테니 커피와 비타500을 더 꺼내 볼까? 젤리도 몇 개 두고...’ 그때였다. 갑자기 뜨거운 무언가가 눈시울을 가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을까. 슬픔? 괴로움?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그때 내게 차올랐던 감정은 “기쁨”이었다.

내가 다른 지체들의 예배를 돕고 있는 이 상황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전될 수 없을 만큼 기뻐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물론 이내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그러진 못했다.)

“마르다”의 자리에 서서 기쁨의 눈물이 나다니, 십 년이 넘는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경험이었다. 그날의 나는 지금까지 겪었던 수련회들과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실질은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였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나고, 청년부 수련회 “주토피아”가 끝이 났다. 다른 임원단 멤버들도 집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감상을 남겼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방식이었지만 느껴지는 마음은 같았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카이브 임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함께 지어져 간 공동체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 공동체 프로그램을 맡았던 전효인 청년입니다. 지난 학기 셀 리더님의 추천으로 공동체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 온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았고 처음 참여하는 수련회여서, 사실 기대보다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부터 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프로그램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는 청년들도 처음 본 얼굴이라 서먹하기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처음 해보는 저에게는 더더욱 허허벌판에 집을 짓는 것같이 막막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 매주 만나서 식사하고 아이디어를 보태고 마무

리할 때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편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각자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서 한 명 한 명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도전도 많이 받고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합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고는 서로 격려하며 잘 끝났냐고 묻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게 느껴진 공동체 프로그램 팀이었고 수련회였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토피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아니 각자의 그 존재 만으로도 너무 기뻐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 허락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하고, 함께한 팀원들과 기도와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마칩니다.

전효인 / 공동체 프로그램 스태프(20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처음 맡은 공동체 프로그램

“희빈자매님 안녕하세요~ 지금 겨울수련회 준비 중인데 혹시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시나요?? 참석하시면 뭐 하나 제안드릴까 해서 여쭙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로 저는 이번 겨울수련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공동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경험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3년 가을에 주님의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교적 늦게 세례를 받은 편이었고, 낮을 좀 가리는 탓에 수련회와도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2025년에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대한 형제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을 통해 이번 수련회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도 처음이고 프로그램 진행도 처음이었지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준비를 시작해 보니 180명이나 되는 청년부 인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게임 규칙을 만들어야 했고, 실제로 진행했을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동선과 진행 방식도 세심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내내 저는 “이번 수련회를 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준비하는 공프 멤버들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함께 게임을 점점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집회도 낯설었지만, 공동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경험 덕분에 오히려 수련회 조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좀 부족한 청년이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더 깊게 느끼게 되고, 청년부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예전의 저처럼 수련회가 처음이신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신청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체 프로그램도 하신다면 더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기에 두 가지 모두 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우희빈 / 공동체 프로그램 스태프(29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_ 마태복음 6:33

주기도문을 통해 수없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였으나 삶의 자리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은혜로 주신 현재의 삶이 당연하게 느껴진 탓에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 겨울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을 부르셨고, 일상에서 당신의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_ 로마서 14:17-18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장경철 교수님께서 귀에 들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들음에서 난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한 영혼의 바

른 자세를 갖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삶의 현장에서 성경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삶 속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임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곧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작품을 향한 집요한 사랑을 가지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은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_ 잠언 17:17

그 기쁨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좋은 점은 좋다고,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해주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드러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주위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교현 / 조장(29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길 위에서 생각한 하나님 나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님의교회 청년부 겨울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말씀과 찬양,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고, 수련회 셋째 날의 첫 일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세상 속에서의 실천'이라는 의미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환경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작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쓰레기를 발견해도 그냥 지나가거나, 심지어는 쓰레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중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쓰레기를 줍는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수련회,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수련회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막상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운 작은 쓰레기 하나하나가 단

순한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보는지에 더 집중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 속 공동체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온 땅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선행' 중 하나로 머무를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다른 모습의 찬양일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드러낼 것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동균 / 플로깅(27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가는 ‘써바이블’

주님의교회 청년부 JOOTOPIA 겨울수련회 C조 조장 28기 여수희입니다. 다윗처럼 나이와 체면을 내려놓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청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뜨거운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집회를 통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바른 자세와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나의 믿음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무한히 작은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니요!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예외 없는 캐스팅’,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써 내려가는 고유한 이야기, ‘써바이블’이라는 표현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작품을 향한 작가의 집요한 사랑처럼 아주 깊고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크신 사랑은 “그대는 뛰어나다.”라는 선포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아가 서로 감사와 칭찬을 아낌없이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빛난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품고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한 공동체임을 누리는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갈 우리의 ‘써바이블’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실 텐데도 나를 살리셨으니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써바이블’을 기록해 갈 날들을 기대합니다.

여수희 / 조장(28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섬김

"History Builder"를 주제로 한 청년부 겨울수련회에서 특강, 조모임,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봉사로 실천하는 "Be Builder" 프로그램에서 저희 조를 포함한 2개의 조에서 국수 봉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국수를 먹어보기만 하고 주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위생모, 장갑, 장화,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착용하고 그 안에서는 설거지, 그릇 정리, 국수 삶기, 국수 배부 등의 작업들을 각자 역할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먹던 국수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에 놀랐고 또 매주 엄청난 섬김으로 한 끼를 챙겨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육수를 부어드리는 역할을 맡았는데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할 정도로 생각보다 고

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섬김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일의 일상이 되어 버린 국수 한 그릇에도 그 뒤에서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뜨거운 면이 나오자마자 얼음물에 씻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교회의 여러 사역들에도, 사회의 구석구석에도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준 / 식당봉사(31기)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감

낮선 발걸음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까지

이번 청년부 겨울수련회는 유독 많은 새가족분과 함께할 수 있어 새가족 팀장으로서 정말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새가족분들에게 혹시 부담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도 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모두 제 기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인 초신자 새가족분은 인터뷰에서 “장시간 집회는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4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했어요!”라며, 특히 장경철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을 울려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덧붙여 조원들과 금방 친해져 행복하다며, 수련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며 환하게 웃으며 아웃팅을 나가는 모습은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수련회 직후 주일에는 새신자로 등록한 청년이 유독 많았는데요. 그중 한 청년은 친구를 따라 수련회에 참석한 후, 수련회에서 경험한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며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낮선 발걸음이 뜨거운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새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참 따뜻하고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 그리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손길에 감사합니다 :)

김가영 / 새가족팀 팀장(25기)

중보기도부
서약식 및
3월 월례회

구색을 버리고 회개로,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다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의 첫 목요일, 주님의교회 지하 1층 중예배실은 이른 아침부터 거룩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주님의교회 영적 파수꾼인 '중보기도부'의 3월 월례회 및 사역자 서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단순한 정기 회의를 넘어,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의 영적 성벽을 지킬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엄숙히 헌신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색을 넘어선 진실한 회개

이날 월례회 예배에서는 “구색에서 회개로”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완벽한 ‘구색’을 갖춘 기도보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가슴을 치는 세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넘어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아가 빠진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메시지는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엄숙한 서약, “기도의 비밀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서약식은 긴장감마저 감도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약자들은 한 목소리로 네 가지 핵심 서약을 낭독하며 기도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
하나님과 약속인 기도 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
기도실 내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만 아뢰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사역을 지속할 것

특히 중보기도의 특성상 강조되는 ‘비밀 유지’와 ‘시간의 정직성’에 대한

서약은, 이 사역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대일 대면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도의 릴레이

주님의교회 중보기도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의 등불을 밝혀 왔습니다. 현재는 총 30개 팀, 250여 명의 사역자가 조직되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빈틈없는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부 사역은 ‘중보기도학교’ 양육 과정을 수료한 성도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 공동체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싶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은 로비에 비치된 기도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중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기도 제목은 매주 주제별로 분류되어 사역자들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창한 자랑을 멈추고 서툰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구색을 갖춘 화려한 말 대신 낮아진 마음으로 무릎 꿇은 주님의교회 중보기도부. 이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기에 주님의교회의 내일은 오늘도 소망이 가득합니다.

박준범 목사



8교구
개강감사예배

함께 걷는 공동체를 꿈꾸며

지난 3월 8일(주일), 젊은이분과 8교구는 개강감사예배를 드리며 2026년 상반기 겨자씨 모임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설교를 전한 8교구 담당 교역자인 김요한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23~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공동체를 꿈꾼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8교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있는 도전을 전했다.



설교는 한 초등학교생 ‘기국이’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시작되었다. 연골이 자라지 않는 장애가 있어 운동회 달리기에서 늘 꼴찌였던 기국을 위해 친구들이 함께 멈춰 서서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한 장면은, 경쟁을 넘어 함께 걷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김 목사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며 “우리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생물학적 실존’과 ‘교회적 실존’이 있음을 설명했다. 생존과 경쟁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적 실존이며,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당부했다.

설교는 구체적인 공동체 실천 방향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겨자씨 모임의 의미를 풀어냈다. 먼저 ‘Daily Bread’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체성과 생명을 공급받을 것을 강조했고, ‘Weekly Guard’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 방패가 되어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Monthly Ground’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공감하며, 외로움의 성벽을 허무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김 목사는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며 “겨자씨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할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개인의 삶 역시 회복될 수 있음을 전했다.

이번 개강감사예배를 통해 8교구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나만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자”고 권면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발맞추어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다.



2026년 상반기, 8교구의 겨자씨 모임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깊은 나눔 위에 세워져,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풍성히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함께함

어와나
연합오프닝

말씀으로 자라는 기쁨의 시간

주님의교회 어와나가 지난 3월 7일, 모든 부서가 함께 모인 연합 오프닝으로 2026년 사역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커비스부터 스팅스, 티앤티, 트렉, 저니까지 전 부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이 1층 소예배실에 한자리에 모여 개회식을 진행하며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어와나(Awana)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청소년 제자훈련 사역으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자라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말씀 암송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즐겁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연령별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다음세대를 세워가고 있다.

- ▶ **커비스(Cubbies)**는 5~6세 유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는 기초 단계이며,
- ▶ **스팅스(Sparks)**는 7~9세 어린이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 ▶ **티앤티(T&T)**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단계이며,
- ▶ **트렉(Trek)**과 **저니(Journey)**는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민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처럼 어와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말씀 암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역이다. 올해도 어와나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은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교사들 역시 아이들과 함께 뛰고, 웃고, 말씀을 나누며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로 섬길 예정이다.

2026년, 주님의교회 어와나를 통해 말씀으로 자라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주역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

함께함

사역자모집

아직 비어 있는 그 자리, 당신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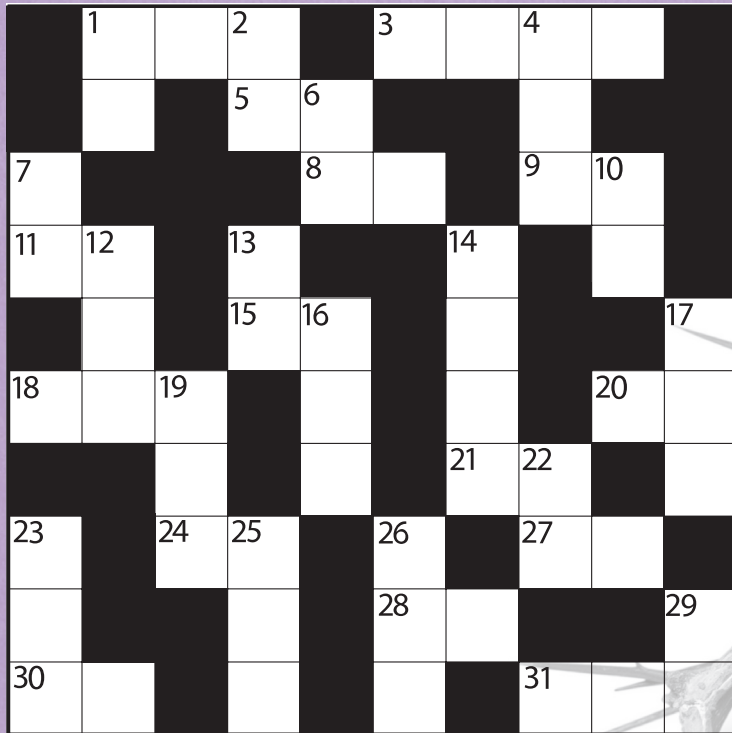
2026년의 봄, 주님의 정원을 함께 가꿔갈 귀한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지난 2월, ‘함즐함울’을 통해 여러 부서의 사역자 모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유치부의 청년 교사 한 분과 외국인유학생선교부의 교사 두 분이 기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빈자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나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님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큰 기쁨과 위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자리에 함께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함즐함울

부서	사역 분야	인원	세부 사항	사전교육 및 연락처
영아부 (16~36개월)	교사 또는 보조교사	2명	-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반별 모임 진행 및 심방 - 예배 준비 및 세팅 도우미 -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미리 체험하고 싶은 청년 선생님 -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교육에 더욱 열심을 내고 싶은 부모님 - 직관적이고 쉬운 말씀, 찬양을 통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도전받고 싶은 성도 누구나 영아부와 함께 해요!	- 예배 시작 전 교사 경건회 및 세부 진행 상황 안내 - 먼저 반 보조교사로 섬겨주시고, 하반기 4주 출석 후 등반한 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반이 편성되면 담임교사로 섬겨주시면 됩니다. - 부장 : 박수희 권사 (010-3328-5085)
유치부 (6~7세)	담임교사 보조교사	1명 4명	- 예배 전 세팅 및 예배 후 해체 - 예배 전과 교사 경건회 중 아이들 맞이하기 -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 담임교사는 가정 심방과 가정 공지 및 반 담당하기	- 매주 로테이션에 대한 반별 위치 파악하여 아이들 각반 자리로 보내기 - 유치부 물품 위치 및 사용 방법 - 부장 : 이왕희 권사 (010-5678-6463)
아기정원 (15~40개월)	담임교사	2명	토요일 오전 10시 사역 - 봄학기 4주, 가을학기 4주 가족 단위의 영아반을 맡아주실 담임교사	- 매주 교사 경건회 및 학기 전 사전 교사 준비 모임을 통해 교육 - 부장 : 정혜정 권사 (010-4159-8948)
어와나 트렉 (중등부) 어와나 저니 (고등부)	교사 또는 보조교사	3명	- 중고등학생 부모역할을 선행학습하고픈 초등학생 자녀 부모님 - 이제는 철들어서 중고등학교 동생들을 잘 가이드할 맘이 든 청년 선생님 환영합니다. - 담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조교사도 가능합니다.	- 어와나 본부 BT 및 학기 전 트랙 / 저니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신앙교육 역량향상 - 부장 : 임성훈 안수집사 (010-8885-8257)
주방부	새벽 준비팀	1명	오전 6시 ~ 8시 재료 준비, 홀 세팅	- 주방 담당 장로, 부장 및 숙련된 사역자가 상세한 설명과 안내와 안전 수칙 교육 - 학생 시절 식당 알바 경험자 대환영 - 부장 : 유정아 권사 (010-7455-2019)
	마무리 팀	8명	- 대식당·소식당 의자 정리, 물걸레 청소 - 중정 의자 및 파라솔 정리	
주차안내부	2부 (08:30~10:30) 3부 (10:30~12:30)	2명 2	교회 안팎의 각 위치에서 주차 안내 및 보행자 안전 유지	- 매뉴얼 및 필요 의류와 장비 지급 - 안전과 위치별 안내 수칙 교육 - 부장 : 오상훈 안수집사 (010-9075-4305)
시온찬양대	2부 예배 찬양대	00명	모든 파트,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실 분	- 지휘자의 상세한 가이드와 예배 전후 연습 - 문의 : 심원일 집사 (010-9005-0112)
다문화선교부	총무, 회계, 서기, 교사	00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과 사랑을 국내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섬기실 분	- 곤지암 비전교회와 협력하여 사역과 지원 - 부장 : 장동현 안수집사 (010-9046-8752)
통선 대외협력부	우리들학교 차량 봉사	1명	- 우리들학교로 봉사자 이동 차량 운전 -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10시 출발	부장 : 윤경자 집사 (010-3050-0155)
도서부	4층 도서실	1명	매월 2,4주 12:00~16:00 봉사자	이은희 집사 (010-9197-5696)
의료 선교부	의료 선교 봉사자	00명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 해외 의료 봉사 참여 (예, 필리핀)	홍승호 안수집사 (010-5411-1048)
무용부	비전선교 무용부원	0명	몸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역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박설리 권사 (010-9075-4305)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디모데전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다섯번째 권인 <디모데전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른 역할과 원칙, 교육과 훈련의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 62~66년 사이에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을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513호 데살로니가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1.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딤후 1:13)
3.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자성어. 어떤 일에 대해 말이 바뀌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딤후 3:8)
5.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대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행위를 말한다. (딤후 2:1)
8. 어떤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일. 의미가 확장되어 잘못이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딤후 5:19)
9. 사람의 몸을 법적 개념으로 부를 때 쓰는 말. 개인의 신상을 뜻하기도 한다. (딤후 1:10)
11. 사명을 받아 파견된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 열두 명을 두었다. (딤후 2:7)
15. 태도나 자세가 점잖고 중후할 때 쓰는 말. (딤후 3:8)
18. 어떤 공간이나 경계에서 빠져나와. 어떤 힘이나 영향력, 구속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딤후 1:6)
20. 애뜻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우려러 받들거나 마음으로 따름. (딤후 3:1)
21. 다른 것 말고 어떤 것 하나만. (딤후 1:9)
24. '너에게'의 준말. (딤후 1:2)
27.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딤후 2:8)
28. 공손하게 받들어 모심. (딤후 6:1)
30. 어떤 것을 바라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성경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을 뜻한다. (딤후 1:1)
31.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신 지불한 물건이나 값.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스스로를 희생한 예수님을 뜻한다. (딤후 2:6)

세로 힌트

1. 널리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진리를 말한다. (딤후 3:9)
2.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 때로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딤후 1:7)
4. 어느 지역이나 나라가 자신의 고향이 아닌 사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뜻한다. (딤후 2:7)
6.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기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일이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를 하셨다. (딤후 2:1)
7. 하나님을 도와 일하는 영적인 존재. 마리아에게 잉태를 알린 것도 이런 존재였다. (딤후 3:16)
10. 주로 민족이나 국가의 형성과 관련되어 구전되는 신비로운 이야기. 한국에는 단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딤후 1:4)
12. 기대나 예상과는 다르게. (딤후 1:13)
13. 옷차림이나 몸가짐, 태도가 얌전하고 바른 것. (딤후 2:2)
14. 에베소 교회의 초기 성도.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 바울에게 배교자로 지목되었다. (딤후 1:20)
16.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사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뜻한다. (딤후 2:5)
17. 사도 바울의 동역자.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성경을 배웠다. (딤후 1:2)
19. 고향을 떠나 다른 곳을 지나가는 사람. 성경에서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딤후 3:2)
22. 직무상 지켜야 하는 본분. 교회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뜻하기도 한다. (딤후 1:12)
23. 지금의 터키 서해안에 있는, 고대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 교역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딤후 1:3)
25. 할 일을 미루면서 행동을 느릿느릿 하는 것. '부지런함'의 반대 의미이다. (딤후 5:13)
26.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않음. (딤후 5:21)
29. 돈이나 가치가 있는 물건. (딤후 6:17)

제7기 주님의교회 세움학당

마침내 영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 세움학당, 영합교수

• 기간 불학기(6주) **3/14 - 4/18**
가을학기(7주) **9/19 - 11/14**

• 시간 매주 **토요일 5시~6시 30분 pm**

• 장소 김대리관 1층 소예배실

• 문의 조연성 목사 (010-5465-3497) • 회비 3만원



신청방법

말씀의 기초위해 자신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일정	교육내용	강사	비고
3/14	'기독교교육' 바로알기	장순애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3/21	신앙교사의 예배	이태욱 목사	주님의교회
3/28	신앙교사의 지도력	차승전 목사	
4/4	삼당가로서의 신앙교사	이상익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4/11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이현식 장로	주님의교회
4/18	자기를 찾아 떠나는 영성여행	조연성 목사	
9/19	사명과 섬김의 사람	박상진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10/10	비전을 찾아 떠나는 영성여행	배운환 목사	주님의교회
10/17	다음세대를 세우는 영성여행	박준범 목사	
10/24	'교육과정' 바로 알기	박성철 장로	
10/31	부서방문	실습	
11/7	N.T. 와 C.T.	박민규 목사	
11/14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수료)	김하수 목사	

교회일정	
3/29(주일)	종려주일
3/30(월)~4/4(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1(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1교구)
4/3(금)	성금요일
4/5 (주일)	부활주일
4/12 (주일)	정기당회
알립니다	
1. 2026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일정 및 모집 안내	
• 일정	
코스타리카(금상호)	7/6(월) ~ 7/14(화)
베트남(이민음)	7/15(수) ~ 7/19(주일)
필리핀(유성훈)	7/22(수) ~ 7/27(월)
일본(정수아)	7/24(금) ~ 7/27(월)
베트남(최화평)	7/27(월) ~ 8/1(토)
필리핀(송지형)	8/13(목) ~ 8/18(화)
키르기스스탄(윤바나바)	9/1(화) ~ 9/8(화)
• 모집기간 매주일 8:00 ~ 13:30, 3/29(주일)까지	
• 모집장소 1층 로비	
• 문의 김홍섭 안수집사(010.9102.5281)	
2. 해피맘스쿨 13기 모집	
• 대상 임산부	
• 교육 4/10~5/29 (매주 금) 13:00(중)	
• 모집 3/29 (주일)까지	
• 신청 이영원 전도사(010.3954.7208)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